

세월호 규명, 시민들이 움직인다

한땀한땀 만든 손뜨개 작품 광주지법 가로수에 입히고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도심에선 '릴레이 일일단식'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조용하면서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재판 열리는 법원 앞에서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매주 화요일, 광주지방법원 앞 길은 노란색 팻말을 든 시민들로 북적인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부실 구조, 무책임함과 안일함이 맞물리면서 빛이진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다.



26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광주지법 앞 도로에서 열린 '세월호 진실 마중길'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세월호 진실나무로 지정된 가로수에 세월호 희생자를 상징하는 별모양의 이름표를 걸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제에 대해서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참가자 김우환(37·동구 산수동)씨는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도 '그동안 많은 참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이 안 돼 이번에도 다시 참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다른 시민들도 '이번에 안 바꾸면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 이번 기회에 진상규명을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행사 소식을 몰랐던 시민들도 출근길 걸음을 멈추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뜨겁게 입을 벌린 가로수를 쳐다보다 '세월호

진실나무'로 지정된 가로수를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상징하는 별모양 이름표를 내걸고 동참했다.

정승현(37·서구 화정동)씨는 "우연히 지나다가 행사를 보고 참여하게 됐는데,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수사권·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고 진상을 규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REMEMBER', '진실 규명하라' 등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뜨개 천도 등장했다.

엄마와 손잡고 나온 한 어린 유치원생이 "엄마, 이거 나무에 입히면 언니 오빠들이 물 밖으로 나와?"라고 묻자, 행사 참가자들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못했다.

◇중심가, 팽목항, 온라인에서도=광주YMCA는 26일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일일 단식과 기도회 및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광주YMCA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전국 65개 한국YMCA와 함께 '릴레이 일일단식'과 기도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YMCA는 또 목포·여수YMCA와 함께 지난 5월 16일부터 매일 밤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실종자 가족을 돕는 '팽목항 무박 2일 등대지기' 행사도 진행중이다.

이날 현재 400여 명이 '팽목항 등대지기'를 자처했다. 광주YMCA 등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 1명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는 날까지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지금까지 온라인 서명 30만4618명을 받았다. 서명운동은 해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져 국외 서명 2만2481명, 거리 서명 331만4837명 등 총 364만193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조선대 총동창회장 이사 선임은 부당" 판결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대학의 일반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6일 김용익 조선대 이사가 조선대 이사회와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사 권위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사회에 이와 관련한 재량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는 이사 권위시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개방이사 선임에 앞서 이 총동창회장을 일반이사로 뽑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일반 이사를 먼저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사회에 우호적인 일반 이사를 먼저 선임할 수 있는 등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유병언 시신 유족에 인계형 병일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계돼 장례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유씨 일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씨의 형 병일(75)씨는 전년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에 제출했다.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씨의 장례식을 열 예정이다.

연일뉴스



셀카봉 들고 졸업식 추억 전남대학교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26일 옹봉홀 앞. 졸업생들과 친구들이 셀카봉을 이용해 추억을 남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초·중·고생 73.6% 사교육 받는다

2년전보다 6.2%p 급증 광주교육청 종합실태 분석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 2년 전보다 무려 6.2% 포인트가 급증해 73.6%에 달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2014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학생 10명 중 7명 이상(73.6%)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67.4%보다 6.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초등학교가 84.2%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7.5%, 일반고 64.7%였다.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10.

8시간이었으며 초등학생 11.8시간, 중학생 12.5시간, 일반고 7.5시간이다.

사교육 형태로는 학원이 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습지 20.2%, 공부방 18.2%, 과외 17.4% 순이다. 과외는 일반고(26%)와 중학교(15.4%)에서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과목은 수학이 가장 컸고 이어 영어·국어·사회 순이다.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6.8%에 달했으며, 이 중 45.4%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9시간, 중학교 1.8시간, 일반고 2.3시간

이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77%로, 2012년 조사 때보다 수업시간·학교·선생님·친구 만족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25.5%로 지난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감소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 학업성적, 친구 갈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광주 시내 84개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별·학교별·성별 전체 학생수에 비례한 표본을 추출한 뒤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해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륜 의심이 부른 살인...징역 17년 선고

법원, 동업자 살해 40대에 아내와 불륜 관계로 의심, 동업자를 살해한 40대에 징역 17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6일 함께 술을 마시던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장성군 자신의 집에서 사업 동업자들과 술을 마시

다 다른 일행이 잠든 사이 A(40)씨와 아내(43)의 이야기 중 불륜이 의심되는 말을 듣고 A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김씨 아내의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단순 의심 사유로 피해자를 애제 흉기를 휘둘러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만취(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용기자 dok2000@

커피마신 뒤 텀블러 태연하게 훔쳐

커피마신 뒤 텀블러 태연하게 훔쳐
○커피숍에서 차를 마신 뒤 매장에 진열돼 있던 판매용 텀블러를 태연하게 훔쳐간 60대 여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박모(여·60)씨는 지난날 27일 광주시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점장 임모(여·24)씨와 종업원들이 바빠 일하는 틈을 타 시가 33000원 상당의 금속 재질 텀블러 1개를 손으로 들고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다는 것.

○텀블러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한 점장 이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매장 안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인근에 설치된 CCTV로 행적을 뒤쫓아 박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

상가건물매매
7층 사무나 건물

① 북구 우산동 안보화관 사거리 무등 정례식장 사이 7층 건물 사무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안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증!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사무나 남·녀 직무원(청소 및 카운터)

②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1층 100평(전용 70평)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5천 월 보증금 2천 월 200만원

③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 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회과 나무 식재됨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매가 3억1

④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⑤ 커피숍 급매매(중심사 중심도로 1층)
1층임대 약 80평 사설안배 회고역시 생형력 영안중 식사 및 커피전문점
보 3천 300 상담후 시비결정

(주)대신 010-6670-98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설	
· 광주 북구 안산동 (토지774㎡, 건1031㎡) 감평가 1,612,900,800 / 최자가 1,612,900,800 (신건)투자적합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 건1992.57㎡) 감평가 2,470,120,980 / 최자가 1,729,085,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오치동 (토지378.9㎡, 건659.25㎡) 감평가 504,733,800 / 최자가 353,314,000 (유찰3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1094㎡, 건4489.1㎡) 감평가 4,124,890,300 / 최자가 1,847,950,000 (유찰7회)투자적합	
근/린/주/택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138.8㎡, 건202.77㎡) 감평가 240,099,610 / 최자가 168,070,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본촌동 (토지36.67㎡, 건72.74㎡) 감평가 39,321,290 / 최자가 17,616,000 (유찰3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임동 (토지126㎡, 건178.61㎡) 감평가 164,495,540 / 최자가 115,147,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남구 덕운동 (토지315㎡, 건635.82㎡) 감평가 502,511,640 / 최자가 351,758,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유동 (토지229.7㎡, 건608.69㎡) 감평가 383,295,050 / 최자가 214,646,000 (유찰2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유암동 (토지69㎡, 건72.74㎡) 감평가 39,321,290 / 최자가 17,616,000 (유찰3회)투자적합	
숙/박/시/설	
· 광주 서구 광천동 (토지235㎡, 건980.38㎡) 감평가 780,300,460 / 최자가 546,210,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양동 (토지176.9㎡, 건481.16㎡) 감평가 274,555,800 / 최자가 192,189,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1182.4㎡, 건2289.6㎡) 감평가 3,248,468,500 / 최자가 1,819,142,000 (유찰2회)투자적합	
오/피/스/텔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9.398㎡, 건30.8㎡) 감평가 42,000,000 / 최자가 29,400,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9.27㎡, 건59.04㎡) 감평가 85,000,000 / 최자가 59,500,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42.826㎡, 건190.68㎡) 감평가 350,000,000 / 최자가 100,352,000 (유찰5회)투자적합	
다/가/구(원룸등)	
· 광주 북구 누문동 (토지271.1㎡, 건566.7㎡) 감평가 506,308,700 / 최자가 354,416,000(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신성동 (토지1256㎡, 건300.3㎡) 감평가 1,543,888,500 / 최자가 1,080,708,000(유찰1회)투자적합	
주/유/소	
· 광주 광산구 소촌동 (토지1956㎡) 감평가 2,073,360,000 / 최자가 1,451,352,000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삼락동 (토지1137㎡) 감평가 351,333,000 / 최자가 245,933,000 (유찰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촉저렴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경매, 부동산 컨설팅, 간접, 시계, 설계, 부동산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주)대신 010-6670-9800

①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프프 매장 뒷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망좋은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일대100만 안배, 장남형
전원 대로서 박물사용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② 신축원룸매매
전대 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후문 2분

룸12개
1층 정문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대신
010-6832-9700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① 북구 우산동 사무나 건물 7층 (대96, 건564) 수익 900 매11억
② 광산구 오봉동 8층 건물(대500, 건 700) 1층 상가 120평 월 58개 월수익 3000 매가 35억
③ 수원지구 상가 1층 (19평)대방 5차 A 후문 매가 3억5천(보2천 월 140)
④ 수원지구 상가매매 3층 한솔빌딩(4층 3층) 85평(신한은행 뒤로야별가사 상가) 매가 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⑤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힐스테이트빌딩)(4층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 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용9천)
⑥ 청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 (8층 2층) 62평(부영APT) 매가 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⑦ 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 2억2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⑧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⑨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오피스텔 매매·임대

① 병천동신원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원역 1번 출구 2분(월수익 천체고체)
①11평 매가13천4백(보200 월27 용1천)
②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월 30평 매가 1억3천(용 6천)
③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9800만 (족자주주가능 시비없음)
④ 상무지구 수원오피스텔 매매(6층)
① 19평(수림)8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7천8백(임대 보500, 월40)
② 13평(수림)6층 임대보증금 3백~33만원 매매가 5천만원

신축원룸 매매

① 신축원룸 4층 북구 용봉지구 룸 21개 월수익 800(1층상가 2, 4층 주민주택) 매가 11억8천
② 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진대동은 2분) 룸 12(1층 정문1칸,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부동산 직원구함(남·녀 실장) 여성 급여제 가능

신한 010-68329700